

## 브라질 거주 아시아계 이민의 과거와 현재: 한인과 일계 이주민의 비교연구\*

이채문\*\*

주저자/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신형진

교신저자/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이현철

공동연구자/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이토히로코

공동연구자/경북대학교 사회학과

**Lee, Chaimun, Hyoung-jin Shin, Hyunchul Lee and Ito Hiroko (2016), "Past and Present of the Asian Immigrants in Brazil: A Comparative Study of Ethnic Koreans and Japanese"**

###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a comparison of Korean and Japanese migrants in Brazil, analyzing the processes of their adaptation and integration in the Latin American country. Using the data from the 2010 Brazilian Census provided by the Integrated Public Use Microdata Series, IPUMS-I at the Minnesota Population Center, this study compared variou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wo Asian ethnic minorities in Brazil, including migration histories, areas of residence, religion, educational achievement, occupational diversity, citizenship acquisition and income level. The result shows that both Korean and Japanese ethnic groups emigrated to South America from East Asia, but it turned out that their processes of adaptation and integration into the host society were quite different. Most importantly, their migration trends were tightly connected with the receiving country's needs for

---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3A2043652).

\*\* Chaimun Lee is full professor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Hyoung-jin Shin is assistant professor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Hyunchul Lee is assistant professor at Kosin University, Korea. Ito Hiroko is graduate student 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Direct correspondence to Hyoung-jin Shin (Email: h.shin@knu.ac.kr).

human resources. In their adaptation and integration in the destination country, both ethnic minorities also show differences. Japanese migrants are more dispersed all over Brazil and engage in various jobs, including agricultural occupations, but their Korean counterparts, although relatively high in their socio-economic status, tend to be disproportionately more focused on service and sales jobs in urban areas.

**Key Words:** Korean immigrants in Brazil, Japanese immigrants in Brazil, Bom Retiro, agricultural immigrants, Census of Brazil, skilled immigrants

## 들어가는 말

세계화(globalization) 과정으로 수반된 국제이주(international migration)의 증가는 송출국과 수용국 모두에서 디아스포라 연구를 활성화시켰고 한인 디아스포라와 관련해서도 해외 각지 170여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7백20여만 한인들의 이주와 정착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한 연구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북미와 일본, 중국, 그리고 구소련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관한 연구에 비해 중남미, 동남아, 호주, 유럽 등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중남미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인 브라질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는 그 양적인 수준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더욱이 국가별 비교 연구의 시도는 일천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아시아계 이민들의 사회인구학적 지표의 특징과 관련하여 브라질 한인과 일계 브라질인의 차이 및 유사성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브라질의 아시아계 이민자 집단은 주로 중국계, 일본계 및 한국계로 이루어지며, 거주국인 브라질에 적응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상학적인 측면이다. 이러한 상이한 차이와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기존의 이주민에 관한 피상적인 문헌연구에 더하여 좀 더 심층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전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선행연구가 미미한 중남미 한인의 디아스포라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브라질 센서스 자료를 분석하여 기존의 구술사 연구와 역사적 자료를 통해 알려진 브라질 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신뢰할만한 대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계량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 연구는 브라질의 대표적 아시아계 이민자 집단인 일계 이주민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서로 다른 두 이민자 집단이 거주국인 브라질에서 적응 및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차이점들을 이민의 역사, 거주지 및 종교, 교육수준 및 직업, 시민권 및 총소득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비교를 통해 분석해 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미네소타대학 인구학 센터에서 제공하는 IPUMS-International 자료 중 브라질의 2010년 센서스 10% 미시표본자료(micro sample data)를 이용하여 가장 최근의 브라질 한인과 일계 브라질인의 인구현황과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 브라질의 한인과 일계 이주민 비교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구 분석

브라질의 한인과 일계 브라질인의 존재는 남미거주 동양계 이민사에 있어서 다양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동양계 이민이 그들의 본거지와는 정반대의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및 인종적으로 매우 유사한 민족이면서도 이주후의 정착과정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양 민족의 비교는 학문적으로 매우 필요한 과제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의 기존문헌 분석에서 후술하듯이 이 두 개의 이민자 집단을 비교하는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센서스라는 방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두 민족의 이민현황과 역사, 거주지 및 종교, 교육수준 및 직업, 시민권 및 총소득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분석은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온 일계이주민과 브라질 한인에 관한 기존의 문헌분석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 및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문제는 아시아계 이민들의 사회인구학적 지표의 특징과 관련하여 브라질 한인과 일계 브라질인의 차이 및 유사성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브라질의 아시아계 이민자 집단은 주로 중국계,

일본계 및 한국계로 이루어지며,<sup>1</sup> 거주국인 브라질에서 적응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이주민에 관한 피상적인 기존의 문헌연구에 좀 더 심층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특히 브라질 한인과 일제 브라질인 간의 차이를 고려할 때 더욱 의미로운 내용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브라질로의 아시아계 이민이 시작된 것은 1810년 브라질을 지배하고 있던 포르투갈 정부가 차를 재배하기 위해 수백 명의 중국인을 데려오면서 시작되었다(Shoji 2004, 75; Kim 2011, 6, 재인용). 당시 브라질 정부는 대규모 농업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매우 절실하였으나, 자국 내의 농업 노동자들은 믿을 수 없는 존재로 치부하면서 값비싼 유럽 노동자에 비해 훨씬 노임이 싼 아시아계 중국인 노동자(coolie)를 선호하였다. 그러면서도 아래에서 보다시피 중국계 노동자를 정규적인 이민자로서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당시 브라질에서 필요로 하는 임시방편적 농업노동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존재로서 간주하였다.

노예들의 노동력은 노예해방령이나 죽음에 의해서 폐지될 것이다. 브라질 원주민들은 영속적인 보조 노동력으로 간주될 수는 있지만 모든 노동력 수요를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자유노동자를 수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더 나은 질의 인종을 정착시키기 위한 시험적이고 과도기적인 수단으로 중국인 고용노동자가 편리하고도 임시방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Santos and Hallewell 2002, 64-65).

브라질의 아시아계 이민자들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제 브라질인 또한 이주 초기에는 이러한 브라질 내 농업노동력 수요의 차원을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브라질의 농업노동력 수요가 1880년대 후반 일본의 농업정책의 실패와 메이지 시대의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과 맞물리면서, 일본은 반일본 정서가 심했던 북미를 피하고 남미 브라질로의 이민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793명(자유도항자 12명을 포함)<sup>2</sup>의 일본인들이 1908년 가사토마루(笠戸丸)호를 타고 브라질 산토스항에 입국한 이래 1941

1 중동계의 브라질 이민도 없지는 않지만, 본 연구는 논의의 효율상 주로 동아시아의 민족들로만 국한하려고 한다. 중동계의 브라질 이민에 관하여는 Kim, Young-Chul(2011)을 참조할 것.

2 초기 일제 이민자수에 관련해서는 문헌마다 다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파울루에서 발간된 『ブラジル日本移民八十年史(1991)』에 따라 165가구 733명, 독신자 48명 그리고 자유도항자 12명을 포함한 793명을 초기 이민자로 한다.

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양국관계가 단절될 때까지 약 188,209명의 일본인들이 브라질로 이주하였다(Sasaki 2008, 54). 1959년 일계 브라질인의 이주가 다시 재개되어 현재까지 약 260,000명이 브라질에 도착하였다.

한인의 브라질 이주 또한 브라질의 일계 브라질인과 유사한 점이 없지 않았다. 1960년대 당시 한국의 과잉인구문제와 농업문제의 해결에 고심하던 정부는 1962년 12월 농업이민자 103명을 파견한 이래 모두 5차례에 걸쳐 약 1,300여명의 농업이민을 1960년대에 브라질에 파견하였다.<sup>3</sup> 그러나 농업이민으로 이주한 한국이민자들은 한국적 농업방식이 브라질 현지에 잘 맞지 않아 극소수의 농업종사자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도시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였다.

이처럼, 브라질 한인과 일계 브라질인의 비교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두 집단 모두 농업이민으로 이주를 시작하였으나 현지생활의 적응 결과는 완전히 상이한 것을 들 수 있다. 즉, 일본인의 경우 초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에 생활기반을 가지게 되나, 한인들의 경우 농업이민으로 시작하여도 대부분 도시에서 생활하는 등 두 이민 집단이 전혀 다른 정착과정으로 귀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에 농업이민으로 시작된 브라질 한인이주민과 일계 브라질인 간에 나타나는 사회인구학적 차이점을 이민현황과 역사, 거주지 및 종교, 교육수준 및 직업, 시민권 취득 및 총소득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좀 더 흥미로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브라질 한인에 대한 연구가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이민의 시기 및 이민자의 수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시기상으로 보더라도 여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의 고려인, 중국의 조선족, 일본의 재일한인 등 20세기 초기에 진행되었던 여타지역의 재외한인들 보다 짧게는 20여년, 길게는 약 100여년 뒤늦게 이민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3 1962년의 공식이민 이전에도 여러 집단의 브라질 이주 한인들이 있었다. 1918년 허가 없이 배를 타고 브라질에 도착한 박학기씨가 있고, 이후 1926년에 이종창, 장승호, 김수조씨가 브라질로 이주하였으며, 1931년에는 김영두씨 일가족 6명이 브라질에 도착한 일이 있었다. 1956년에는 방공포로 50명이 이주하였으며, 1962년 고헌순씨 등 15명이 한·백 문화 사절단으로 브라질에 갔다가 정착한 일도 있었다(「남미 이민의 선구 '브라질 한인」, 『재외동포의 창』, 2012년 5월호). [2016.03.13 검색], [http://webzine.korean.net/201205/pages/sub03\\_03\\_01.jsp](http://webzine.korean.net/201205/pages/sub03_03_01.jsp)

감안하면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니다. 또한 이민자의 수적인 측면에서도 수 십여만 명에 이르는 여타 재외한인에 비하면 극히 적은 규모이며, 이러한 점 또한 소홀했던 브라질 이민연구에 반영되었으리라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브라질 한인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 이를 몇 가지 유형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이민의 역사적 기술(記述)의 측면에서의 연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최근의 한류의 영향과 관련한 연구, 그리고 좀 더 진전된 것으로는 에스닉 인클레이브와 관련된 연구도 눈에 띈다. 그러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센서스를 이용한 브라질 한인에 대한 심층적인 비교연구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역사적 서술의 측면에서 진행된 연구로는 먼저 2011년 브라질 이민 5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펴낸 『브라질 한인이민 50년사(1962-2011)』를 들 수 있다. 총 7부로 된 이 책에서는 초기 브라질 이민의 역사에서 시작하여 이민자들의 구성, 농장 형성현황, 지방 및 상파울로 이민사 및 이민생활, 그리고 한인 교육 및 문화사에 관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실고 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1990년 인류학적인 관점에서는 전경수(1990)가 지은 『브라질의 한국이민: 인류학적 접근』이 학문적인 측면에서 브라질 이민사를 조망하고 있다. 역시 이 책에서도 상기 『브라질 한인이민 50년사(1962-2011)』와 유사한 서술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이민연구의 방법론에 입각하여 자료를 수집 및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초국가주의적 연구의 영역에서 주종택(Joo 2010)은 브라질의 한인 이민사회에서 나타나는 초국가주의적 현상을 현지조사를 통하여 서술하고 있다.

또한 2013년 브라질 이민 50주년을 맞이하여 브라질 한인사회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하여 최금좌(Choi 2014a)는 61명의 브라질 한인사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의 문헌연구에 비해 진일보한 연구방법을 택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브라질 한인들의 구성과 문제점, 브라질 사회로의 동화, 브라질 사회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표본이 적고, 지역적으로 상파울로라는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다는 한계성이 있다. 그 외 최근에는 지리학적 관점에서 지리적 맥락과 산업생산체계의 공간적 함의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상파울로의 봉헤치로를 사례지역으로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Moon and Jang 2014).

브라질 한인사회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기마랑이스(Guimarães 2006)는 상파울로에서 입수한 2차 자료 및 미간행자료를 이용하여 브라질 한인사회의 문제점과 전망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의 측면에서 진행된 브라질 한인사회에 대한 분석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 상파울로시의 한식당의 현황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한식당을 방문한 90명의 브라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다(Chung, Woo and Kim 2012). Buechler(2003)는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상파울로의 의류산업에 있어서 한인들과 볼리비아인들 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로컬영역과 글로벌 영역간의 상호연계성에 관해 분석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에서 진행된 용역 보고서에서는 K-pop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브라질 한인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Choi 2014b).

그 외 브라질만을 다룬 것은 아니나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한인들의 이주를 개괄적으로 간략히 다룬 논문으로는 김세건(Kim year unknown), 박채순(Park 2011), 그리고 임상래 외(Lim et al. 2006) 등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임상래 외(Lim et al. 2006)로, 이 연구는 중남미 4개국의 한인 실태조사로서 전문가 그룹만을 중심으로 한 연구라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브라질 한인연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개론서, 개괄적 요약 또는 다양한 자료를 통한 역사적 서술 등에 그치고 있고, 센서스와 같은 공신력 있는 실증적 자료를 근거로 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계 브라질 이민에 대한 문헌연구는 한국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점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연구진에게 입수 가능한 자료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일계 브라질이민은 1908년에 집단 농업계약이민으로 공식적으로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공식적인 집단이주 이전에도 브라질로의 일계들의 이주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일계 브라질 이민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하여 1908년부터 일본과 브라질 간 국교단절 이전인 ‘구(舊)이민’과 국교 회복 이후의 ‘신(新)이민’으로 나뉘어서 볼 수 있다.

일계 브라질이민의 역사에 관련해서는 이민 80주년을 기념해서 일본이민 80년사 편집위원회(日本移民八十年史編纂委員會)가 상파울로에서 발간한

『브라질 일본이민 80년사(ブラジル日本移民八十年史)』가 가장 유명하다. 일계들이 직접 본인들의 역사를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정리한 것으로서 많은 역사적인 사료(史料)를 인용하여 만들어진 책이다. 한편 일계 이민자의 송출국인 일본에서도 그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은 일계 브라질인의 일본으로의 역이주와 관련된 데카세기(出稼ぎ) 현상에 관련된 것이며 브라질로 이주한 일계 이민자에 관한 것은 많지 않다. 나카야마(Nakayama 2014)를 비롯해 브라질 이민자의 송출형태, 혹은 송출배경,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 브라질에 일계가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지, 어떤 사회·인구학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100년이 넘는 일계 브라질인의 현황이나 그 특징을 다룬 연구에는 가이조 외(Kaizo et al. 2008)와 후쿠이(Hukui 2014) 등이 있다. 가이조 외는 1960년, 1980년, 2000년의 인구센서스 마이크로데이터(IBGE)를 이용하여 인구분포, 교육, 소득과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춰 일계 브라질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일계 인구를 추출하기 위해 가족구성원 중에서 한명이라도 ‘항색인종’이거나 ‘일본에서 출생’ 혹은 ‘(과거 5년 이내의) 일본에서의 전거’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택한 다음 다른 아시아 지역 출신자를 제외하는 방식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일계의 범위에 일계와 결혼한 非일계까지 포함되어 순수 일계 브라질인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非일계와의 국제결혼증가와 혼혈화로 인해 순수한 일계 브라질인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간주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또한 후쿠이는 일계 브라질 1세들의 고령화로 인해 2세, 3세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일계사회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이나 사회경제적인 특징을 시대와 세대 간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후쿠이의 조사도 기존문헌조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정량적인 조사를 통한 연구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지구화 시대에 일본의 경제적 지배력의 강화와 관련하여 일계 브라질인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서술적 방식에 의존한 연구(Tsuda 2001)도 있고, 또한 최근에는 일계 브라질인의 후손들에 의한 일본으로의 귀환이주 경험과 브라질로 이주한 일계 브라질인의 경험을 연계하여 분석한 문헌 연구(Sasaki 2008)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센서스와 같은 공인된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는 거의 드물다.



이상에서 보듯이 현재까지 진행된 브라질 한인 연구, 그리고 일계 브라질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문헌을 이용한 연구가 많았고, 또한 일부 계량적인 연구가 없지는 않았으나 표본의 수가 극히 적어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가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브라질이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사회라고 본다면 이주 한인과 여타 민족, 예를 들어 일계 브라질인과의 비교를 통한 이주 및 정착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구조사를 통한 민족 간의 비교연구는 객관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나 기존 연구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미네소타대학 인구학센터에서 제공되는 PUMS-International 브라질 자료를 기초로 하여 브라질 한인과 일계 브라질인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방법

### 분석자료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미국 미네소타대학 인구학 센터에서 제공하는 IPUMS-International 자료 중 브라질의 2010년 센서스이다. 2016년 현재 IPUMS-International은 브라질을 포함하여 세계 82개 국가의 센서스 자료를 수집하여 종단연구와 더불어 국가 간 비교연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변수들을 균질하고 일관성이 있게 정리한 방대한 자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브라질의 센서스는 IBGE(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 즉 브라질 국립지리통계원에 의해 매 10년마다 수집되고 있는데, IPUMS-International에서 제공하는 브라질 센서스 자료는 1960년부터 2010년 까지 5회분의 10% 미시표본자료(micro sample data)이다. 이 연구에서 분석될 2010년 센서스는 브라질 한인과 일계 이주민의 인구현황과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sup>4</sup>

4 한편 IPUMS-International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인 자료와 함께 현장지향적인 브라질 내 한인과 일계인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2015년 12월 28일부터 2016년 1월 10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시 내 봉헤치로(Bom Retiro) 지역, 리베르다지(Liberdade) 지역, 아클리마스(Aclimação) 지역, 그리고 상파울루에서 100km 떨어진 캄피나스(Campinas) 지역 등의 현지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브라질 내 한인과 일계인의 비교 분석을 위한 현장성 짙은 자료들을 심층적으로 수집하였다.

## 브라질 한인과 일계 이주민의 조작적 정의

IPUMS자료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센서스는 출생지(birthplace), 모국어(mother tongue), 인종(race), 민족(ethnicity), 가계(ancestry) 등의 변수들을 모두 수집하고 있어 다양한 소수민족을 센서스 자료로부터 비교적 세밀하게 분류하기가 용이한 반면, 브라질의 센서스에서는 출생지와 인종 변수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브라질의 센서스는 백인(blanco), 흑인(preto), 혼혈(pardo), 황인(amarelo), 원주민(indigenous)이라는 다섯 개의 인종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 연구의 대상인 브라질 한인과 일계 브라질인은 모두 황인으로 분류가 되기에 출생지 변수를 이용해서 구분할 수밖에 없었다. 출생지 변수를 이용할 경우 이민 1세는 출신국가별로 분류할 수 있지만 브라질 현지에서 태어난 2세대 이후의 한인이나 일계 브라질인의 후손들은 구분할 수 없었다. 표 1은 2010년 브라질 센서스에서 출생지를 브라질, 일본, 한국, 그 밖의 국가로 분류한 결과이다.

브라질 센서스 10% 미시표본자료가 제공하는 개인가중치(person weight)를 적용한 결과 2010년 브라질 한인 1세의 인구는 9,578명으로 추정되며 일계 1세는 이보다 약 다섯 배가 많은 48,1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브라질 인구의 거의 모두(99.7%)는 현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며 브라질이 아닌 국가에서 태어난 이민 1세는 전체 인구의 약 0.3%에 불과하다. 이민 1세 중 일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인 반면 한인은 2%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브라질의 출생국가별 인구, 2010년

출생국가	빈도	퍼센트
브라질	190,230,936	99.69
일본	48,141	0.03
한국	9,578	0.01
기타	534,095	0.28
전체	190,822,749	100.00

자료: Minnesota Population Center(2015), IPUMS-International (Brazil Census 2010)

## 분석결과

### 브라질 한인과 일계이민의 현황과 역사

본격적인 브라질 한인과 일계 브라질인의 역사와 관련하여 본다면 먼저 한인이민의 역사는 1963년 2월 12일, 103명의 1차 영농이민단이 산투스 항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일계이민의 역사는 1908년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먼저 브라질 한인의 경우, 브라질에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상륙한 것은 1917 년도에 일본어선을 타고 브라질에 왔다는 박학기 어부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이후 1925년에 일본국 조선인의 신분으로 김창수, 김달수, 김혜성 씨 등이 일본 성(金田: 가네다)을 가지고 입국했고, 1923년에는 김수조 씨가 ‘靑木’(아오 키)로, 1926년에는 장승호 씨가 ‘三田’(미다)로, 1929년에는 이중창 씨가 ‘宮本’(미야모토)로 브라질에 입국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up>5</sup> 공식적인 이민에 집중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브라질에 대한 대한민국의 첫 공식이민은 1962년 12월 18일 제1차 이민단이 부산항을 출발하여 1963년 2월 12일 네덜란드 ‘치자렌 카’(Tjitjalenka)를 타고 산투스 항으로 온 17가구 92명과 전향군인 11명이었으며, 이후 브라질로의 이민은 1966년 5차 이민단까지 이어져서 총 193가구가 입국하였다(국가기록원 2015). 당시 이들의 경우 서구 사회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였으며 막연히 풍요로운 것이라는 상상을 하며 브라질로의 이민을 추진한 것이다. Choi(1991)에 따르면 한인의 브라질 이민과 관련해서 시대적으로 몇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Choi 2000, 46, 재인용)<sup>6</sup>, 전술하였듯이 1961-1962년은 준 공식적 이민 단계로서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한·백 진흥공사’라는 기관을 설립하고 사람들을 모집하였고, 이들은 대부분 5.16 후 군장교 출신들과 6.25와 1.4후퇴 때 남하한 실향민들이었다(Choi 2000, 52). 당시 한·백 진흥공사는 문화사절단의 이름으로 현장답사의 형식을 가지면서 1962년 1월 5일 비행기로 브라질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 시기 한국정부는 정련된

5 브라질 한인회 이민 50년사 자료, [2016.01.27 검색]. <http://haninbrasil.org/idx.php?id=hanin&code=112130&mode=view&num=569&lang=kr>

6 최금좌의 석사논문 “무지개를 넘어서: 브라질 한국이민사”는 상파울루 대학교 철학·문학 및 사회과학대학 역사학과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이민으로 기록된 석사학위논문이다. 최금좌는 당시 브라질 한국 이민에 대한 학술적 자료가 전무한 상태에서 한국은 물론 브라질과 미국에서 발간된 인쇄물(신문, 잡지, 보고서, 미국 이민들에 대한 글)들을 1956년부터 1990년까지 수집하여 정리하였으며, 브라질 교포 35명을 인터뷰하여 수행하였다(Choi 2000, 43-68).

이민정책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민간인 차원의 개인교섭으로 이민이 시작이 되었으며, 1962년 3월 15일에서야 정부는 이민법을 공포하며 보사부를 주무관청으로 지정하여 본격적인 이민관련 행정이 이루어졌다(Choi 2000, 52).

이후 1963-1971년이 공식적인 이민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농업이민과 기술이민의 두 가지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농업이민은 1963-1966년 사이에 이주한 1,300여명의 농민으로서 브라질 농촌지역에 농장들을 세워 경영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이들이다(Choi 2000, 52). 왜냐하면 이들의 경우 퇴역장교 출신들이거나 교육을 받은 중산층 기독교인들로서 도시의 상인출신이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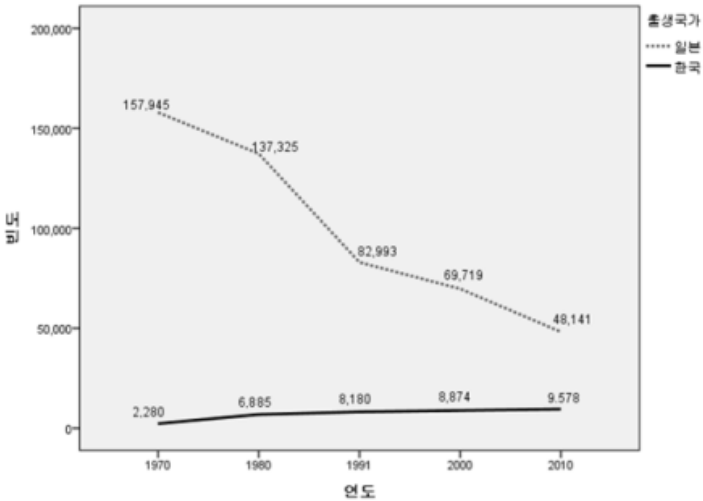
다음으로 기술이민은 1971년 브라질 땅에 비행기로 도착한 1,400여명인데, 이들은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해 모집된 이들로서 ‘서류상’으로는 기술 이민자들이었으며 대학졸업장을 갖춘 고학력자들이었다(Choi 2000, 53). 이 시기의 이민자들은 도시지역에서의 정착을 선호하였으며, 미국으로의 재이민을 위해 노력했다. 소수의 한국인들은 여행비자로 불법적으로 머물면서 브라질 내에서의 경제적인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보기도 했다(Joo 2010, 330). 1980년대 이후부터는 초청이민으로 남미의 최대 상업도시 상파울루에 집결하여 살았으며, 그중 대부분이 봉헤치로(Bom Retiro)와 브라스(Bras) 지역의 의류업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생활을 영위해나갔다.

한편 일제 브라질인의 경우 1908년 793명을 태운 이민선인 가사토마루호로부터 시작되어 현재 일제의 역사는 100년을 넘는다. 『ブラジル日本移民八十年史(1991)』에 따르면 일제 브라질인의 역사는 초기이민시기(1908-1923), 국책이민시기(1924-1941), 이민공백시기(1942-1951), 전후(戰後)이민시기(1952-1973), 집단이민의 종막과 역이민시기(1974 현재)로 나눌 수 있다. 초기이민 시기에는 공모에 따른 자발적인 형태의 이주, 국책이민시기에는 말 그대로 일본정부의 국책의 일환으로 조직적 이민공모에 기초한 이주가 이루어졌다. 1908년부터 1941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브라질로 건너간 일제 이민자인 ‘구(旧)이민’은 약 19만 명이였다. 그러나 1930년대 만주사변이나 청일전쟁 등 일본의 대외 침공이 많아지는 것을 계기로 일제 이민에 대한 배척운동이 심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브라질정부가 이민의 브라질 동화정책을 실시하여 일본어교육금지, 일본어신문과 잡지 단속강화, 이민사회의 교육문화 활동을 제한하면서 일본귀국을 선택하는 역(逆)이민자가 증가하였다(Lim 2010, 16).

1940년에 들어 제2차 세계대전의 격화나 미일간의 관계악화로 인해 1941년 8월에 일제이민의 브라질 도향은 중지되었다. 그 이후 1951년에 브라질과

일본이 국교를 회복할 때까지 정식적인 이민자가 없는 이민공백시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국교회복 이후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이주 진흥책에 의해 농업이민 및 기술이민의 송출이 추진되어 1959년에는 연간 이민자수가 7,000명을 넘어섰다. ‘신(新)이민’이라고 불리는 전후이민들은 일본기업의 브라질 진출에 따라 브라질 주재원이 계속 증가하였으나 1964년 이후에는 연간 이민자가 1,000명을 밑돌아 결국 1973년에 이민선으로 인한 브라질 집단이주가 폐지되었다. 그 사이에 약 6만 명의 전후이민자가 브라질로 이주해갔다. 한편 그 이후 일본에서는 고도경제성장이 계속되면서 브라질 이민자 수가 줄어드는 반면 일제 브라질인의 역이민현상, 즉 데카세기 현상이 표명화 되었다.

상기 부분에서 서술된 양국 이민에 관한 양적인 분석은 다음의 센서스 데이터의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그림 1은 공식적으로 브라질 한인이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인구 총 조사가 실시된 197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0년까지 브라질 센서스를 이용하여 한인과 일제 1세의 인구변동을 비교한 것이다.



자료: Minnesota Population Center(2015), IPUMS-International (Brazil Census 2010)

그림 1. 브라질의 한인과 일제 이민 1세의 인구 증감

그림 1에서 관찰된 것처럼, 40년 동안 일제 1세는 그 수가 157,945명에서 48,141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한인 1세는 비록 절대적인 수에서는 상대적으로

로 미미한 변화로 보일수도 있겠으나 인구가 2,280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9,578명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일제 1세가 감소한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1973년에 집단이민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 브라질로 들어가는 1세 이민자가 많지 않았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배일(排日)기운이 강해지면서 일본으로 귀국하는 일계가 많았고, 전쟁 후에도 1970년 이후 점점 귀국자가 증가하여 데카세기 붐이 시작하는 1985년 이후에는 상당수의 일제 1세가 일본으로 귀국하였다.<sup>7</sup> 셋째,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초기 이민자들의 고령화에 따른 자연사로 인한 감소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일제 1세는 지속적인 감소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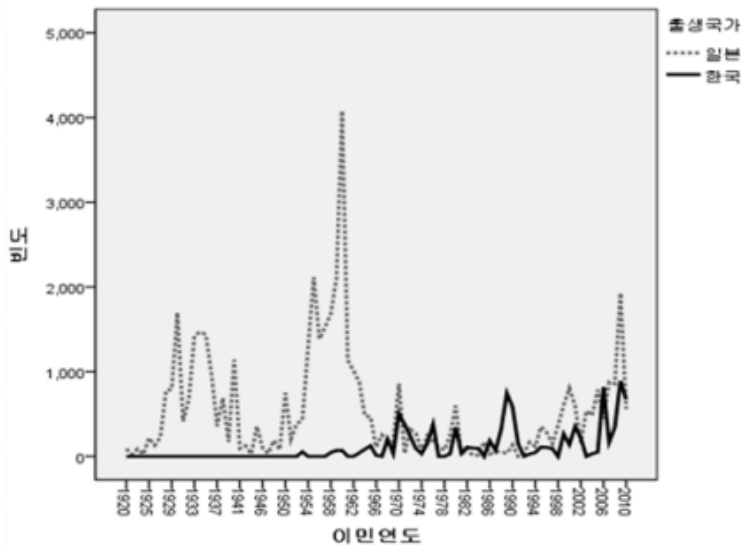
그림 2는 2010년 현재 이민자들만을 대상으로 브라질로 이민을 온 연도를 묻는 질문에 대답한 결과에서 한인과 일제 이민자를 선택한 것이다. 일제의 경우 크게 세 차례의 이민자 수의 파고가 발견되는데 1928-1941년, 1954-1966년, 그리고 1998-2010년 사이가 그러하다. 먼저 첫 번째 파고를 살펴보면, 이제까지 일제 브라질인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미국에서 일계에 대한 인종차별 격화, 그에 따른 황화론이 심해지면서 일제이민을 금지하는 배일이민법을 제정함으로써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국책으로서 브라질 이민을 권장하기 시작하여 이민희망자에게 도항비 전액보조 등의 시책을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1920년대 후반부터 수많은 일본인이 브라질로 건너가게 되었다<sup>8</sup>.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일본과 브라질은 국교가 단절되어 이민자의 도항이 없어졌다. 두 번째 파고는 양국의 국교가 회복된 이후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이주 진흥책에 의해 농업이민 및 기술이민의 집단 이주가 이어졌던 시기다. 특히 1959, 1960년에는 연간 이민자수가 7,000명을 넘어섰다.<sup>9</sup> 그러나 ‘브라질의 기적(1968-1978)’이라고 불리는 경제성장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이민자보다 역이민 혹은 ‘데카세기’로 일본으로 건너가는 사람이 많아졌

7 日本移民八十年史編纂委員會 編(1991, 256).

8 그러나 브라질로 이주한 사람이 모두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제2차 대전 전에는 배일기운이 강해지는 1937년부터 1941년에 걸쳐서 일본으로 귀국하는 사람이 많아 1939년에는 2,011명이 귀국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동년 브라질로 이주한 이민자 1,546명을 웃도는 수치다. 따라서 본 통계에서 보이는 수치는 2010년 당시에 브라질에 남아 있는 일제를 가리키며 실제 도항자는 더 많았다(日本移民八十年史編纂委員會 編 1991, 256).

9 國際協力事業團(1994, 116-117) 『海外移住統計』. 또한 그림 2에서는 1960-1961년의 이민자수가 가장 많지만 이것은 통계의 특징과 관계가 있다. 본 통계자료는 2010년에 브라질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반드시 입국자수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다. 마지막 세 번째 파고는 근년에 들어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이 현상은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걸친 브라질의 호경기와 관계가 있다. ‘헤알 플랜(Plano Real)<sup>10</sup>으로 인한 브라질 경제의 안정, BRICs의 일원으로서의 잠재성 등에 주목한 일본기업은 이 시기에 브라질로 대거 진출하기 시작하였고(田中信 2006), 이에 따른 일본인 직원의 브라질 도향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자료: Minnesota Population Center(2015), IPUMS-International (Brazil Census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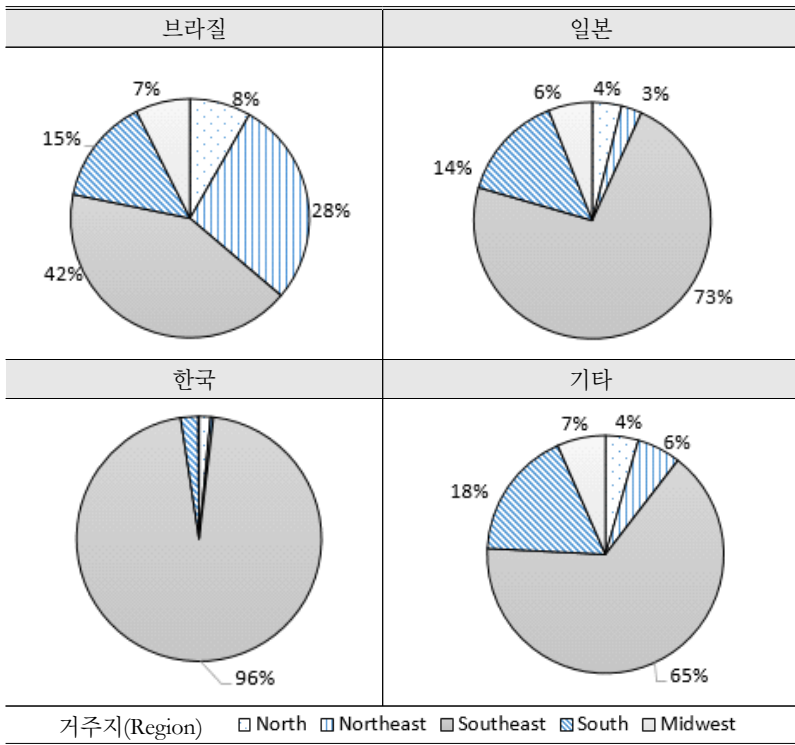
그림 2. 브라질의 한인과 일계 1세의 이민시기 및 이민자수의 비교

한인 이민자는 전무하다가 1953년에 들어온 사람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시작해서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이 이민이 시작된 것으로 관찰된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 해에 유입된 한인 이민자의 수가 일계보다 많았던 해가 발견되며, 특히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초에는 브라질로 유입된 이민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술한 브라질 한인의 이민 역사의 측면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지지되는 사항들이다.

10 1994년 7월에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카르도주가 추진한 경제개혁계획이며, (1)재정의 건전화, (2)미국 달러 연동의 가상통화인 ‘URV’의 도입으로 인한 재·서비스 표지가격의 조정, (3)크루제이루(Cruzeiro)를 헤알(Real)화로 전환·도입이라는 3단계의 경제조정계획을 말한다.

### 거주지 및 종교

지금부터는 표 1에서 이미 제시된 바와 같이, 2010년 브라질 센서스에서 출생지 정보를 이용하여 전체 인구를 브라질, 일본, 한국, 그 밖의 국가라는 네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한인과 일계이민 1세대의 특성을 주류집단(브라질)과 다른 이민자 집단(기타)과 비교하려고 한다.



자료: Minnesota Population Center(2015), IPUMS-International (Brazil Census 2010)

그림 3. 브라질의 출생국가별 거주 지역 특성, 2010년

그림 3은 출생국가별 거주지를 지역(region)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브라질은 크게 북부, 북동부, 남동부, 남부, 중서부라는 다섯 개의 지역(region)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브라질 최대의 도시인 상파울루가 위치한 남동부에 브라질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거주지가 남동부 지역에 집중된 경향은 이민자 집단에서 두드러지는데, 브라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42%가 남동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일계는 약 73%가, 한인은 거의 대부분(약 96%)이 남동부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한인과의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이 남동부 지역이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 한인들의 집거지로서 대규모 집단이 형성되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부터는 초청이민은 대다수가 남미의 최대 상업도시 상파울루에 집결하여 살았으며, 그중의 대부분이 봉헤치로(Bom Retiro)와 브라스(Bras) 지역의 의류업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생활을 영위해나고 있는데 거주지 특성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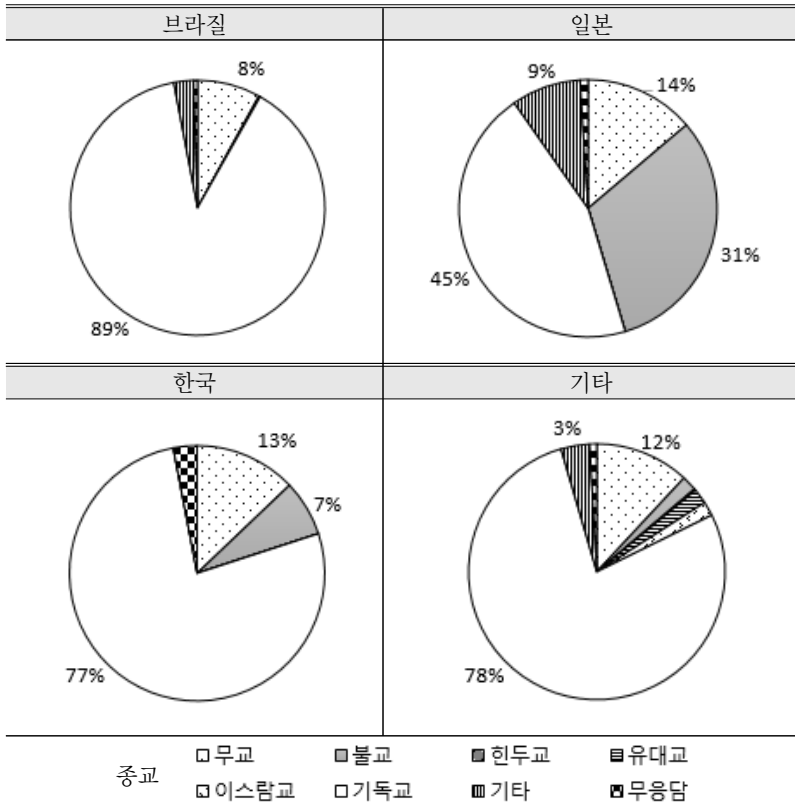
일계 이민자들에게도 이러한 현상은 발견된다. 원래 일계 이민자들은 1908년에 계약노동자로서 입식(入植)되었는데, 처음부터 상파울루주 농업국과 계약해서 브라질로 이민한 일계들은 당연히 상파울루주에 있는 6지역의 경작지에 배속되었다. 그 이후에도 상파울루시를 기점으로 철도연선을 서진(西進)하면서 ‘식민지’ 혹은 ‘이주지’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상파울루주, 파나마주, 남마투그로수주를 비롯한 남·남동지역에 집주(集住)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종교와 관련된 양국 이민자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톨릭 신자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해서 기독교(Christianity)로 묶을 경우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인구의 약 90%가 기독교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생국가가 한국인 경우는(브라질 한인 1세) 기독교도의 비율이 약 77%인 것과 비교해서 출생국가가 일본인 경우는(일계 브라질인 1세) 그 비율이 약 45%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일계 1세의 경우 불교도의 비율이 32%이고 기타 종교를 믿는 사람의 비율도 약 9%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브라질 한인의 브라질 사회 적응 및 통합에 있어 종교적 활동과 기관의 역할들도 주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한인 사회에는 현재 약 45개의 개신교 교회가 있으며,<sup>11</sup> 해당 종교기관(교회)을 통해서 개인 및 가정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브라질 한인들의 이민과정 내 한인사회의 집결 체제와 안정 체제의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브라질한인회 2015). 이와 관련하여 브라질 한인사회 내 개신교는 역동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수준의 개신교 신문과 매체들을 발행하고, 한인들의 상호교류와 봉사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

11 1개의 천주교회, 1개의 불교당도 존재하고 있으나 절대적으로 개신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브라질한인회 2015).

고 있다. 나아가 교회와 종교기관은 한인들에게 사회 적응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언어도 배우는 등,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자료: Minnesota Population Center(2015), IPUMS-International (Brazil Census 2010)

그림 4. 브라질의 출생국가별 종교, 2010년

일제 브라질인의 종교에 관해서 초기에는 일본종교의 조직적인 활동은 없었다. 일본인의 선조숭배는 ‘이에’(집) 조직으로 해석되지만 일본에서의 ‘이에’와 단절된 이국땅에 있는 일제에게 선조숭배를 비롯한 종교적인 실천은 활발히 되지 않았다. 또한 일본정부 측에서도 가톨릭을 사실상의 국교로 한 브라질에서는 타종교의 선전 혹은 포교는 삼가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컸다.<sup>12</sup>

따라서 신도나 불교를 비롯한 일본종교는 활발한 포교를 하지 않는 반면에 가톨릭이나 개신교가 적극적으로 전도활동을 하였다. 일본종교가 조직화하고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1950년대 신이민의 브라질 이주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계 브라질인은 본인의 종교 상황<sup>13</sup>과 달리 브라질 ‘국교’인 기독교를 신앙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이어서 포교활동의 영향을 받아 불교신자가 많아졌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 교육수준 및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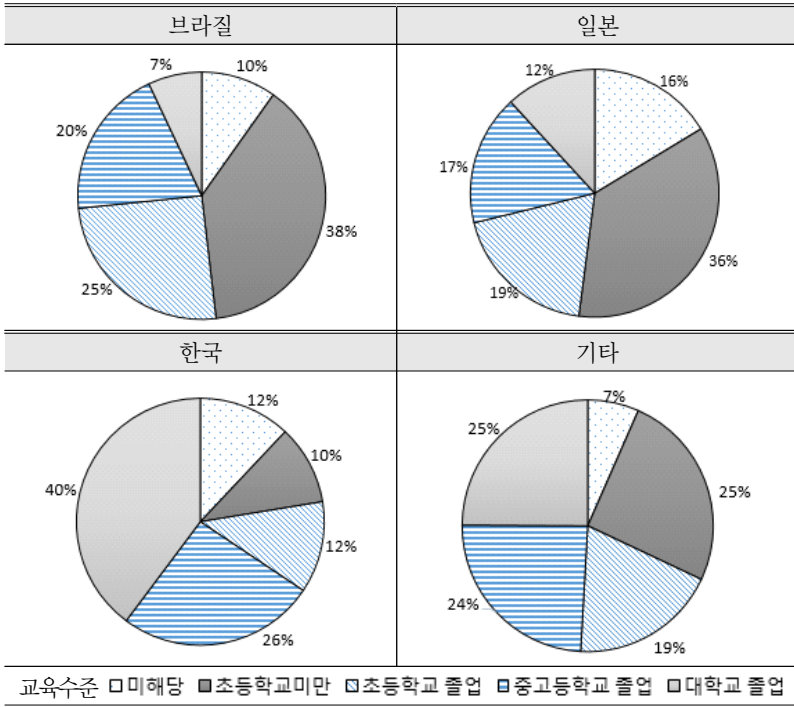
다음에서는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교육수준과 직업의 측면에서 양 이민자들을 비교해 보고자한다.

그림 5는 교육수준을 출생국가별로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인의 약 40%가 대학교육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 기타 이민자 집단에 비해서도 대졸자의 비율이 15%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계 이민자는 대졸자의 비율이 약 12%정도에 머물러 다른 이민자 집단에 비해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브라질 한인의 경우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자녀들의 대학 진학율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최근 의류업 이외에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는 게 가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특히 70년대 이후 대학 진학 세대들이 증가하면서 브라질 주류사회로의 진입이 가능해졌는데, 이들의 경우 언어와 문화적인 소통에서도 주류 사회와의 거부감이 없다. 이는 한국 가정의 높은 교육열로 인한 대학진학이 한인들의 브라질 사회진출의 가능성을 폭넓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12 日本移民八十年史編纂委員會 編(1991, 420-421).

13 文部科學省(2010)의 『宗教統計調査 平成22年度』, “全国社寺教会等宗教団体・教師・信者数”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일본인의 종교·신앙 상황은 신도 51.4%, 불교 43.3%, 기독교·개신교 등 1.0%, 기타 제반 종교 4.3%로 나타나 브라질 일계이민의 종교 상황과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즉, 다른 민족에 비해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도 모국인 일본에서의 종교상황과 비교하면 4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자료: Minnesota Population Center(2015), IPUMS-International (Brazil Census 2010)

그림 5. 브라질의 출생국가별 교육수준, 2010년

그러나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한인과 일계 이민자의 교육수준 차이는 단순히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한인과 일계의 이민역사는 50년 이상의 차이가 있고 ‘학교제도가 얼마나 확립되어 있었는지’라는 부분과 관계가 있다. 또한 1세들의 이민 형태와의 관계도 간과하면 안된다. 일본에서 1872년에 학제(學制)가 제정되고 6세 이상의 모든 남녀가 초등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그 이후 1883년에는 취학률 50%, 1907년도에는 98%를 넘었으나 이 당시의 교육은 4-8년간의 초등교육을 가리켰다. 즉, 1907년 이후 브라질로 이주한 일본인들에게는 모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나서 도항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초기이민자들의 문맹률은 전체의 10%정도<sup>14</sup>에 불과하지만 일부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졸업생, 사범대학교 졸업생, 순사 등의 고학력자

14 日本移民八十年史編纂委員會 編(1991, 38-44).

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농민층 출신의 저학력자들이었다.

다음으로 위에서 살펴본 교육수준은 직업의 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표 2는 국제표준직업분류에 의거 출생국가별 직업분포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현재 직업이 있는 사람들만 선택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인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약 14%에 달해 비교된 집단들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한인들은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 ‘전문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18.3%), 취업자들 중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1.5%) 것으로 나타나 브라질 한인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이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서의 우위와도 연결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한인과 일계의 직업분포를 비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항은 한인들이 ‘서비스 및 판매’ 직종에 가장 높은 비율(38.9%)로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일계는 ‘농림어업 숙련’에 상대적으로 높은(21.2%)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계가 장악하고 있는 농림어업 직종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지만 브라질 한인들의 적소(niche)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일계의 비율은 약 20%인 것으로 나타나 일계들이 상대적으로 더 다양한 직종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라질 한인들의 ‘서비스 및 판매’ 직종은 60년대와 70년대 초기 리베르다지(Liberdade) 지역의 R. Conde de Sarzedas 거리를 중심으로 한 의류 제품업 활동과 최근의 봉헤치로(Bom Retiro)와 브라스(Bras) 지역의 의류업 분야의 활동으로 인한 사항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계가 농림어업 분야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역사와 깊이 관계가 있다. 일계의 대부분은 전쟁 전은 커피농장의 계약이민으로서, 전쟁 후도 농업자로서 브라질로 입국하였다.<sup>15</sup> 즉, 일계 1세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다. ‘농업의 선생’이라고 불리는 일본인도 브라질 자체가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진전함에 따라 도시로 유출되고 직업의 다양화를 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브라질에서 가장 높은 농업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계’<sup>16</sup>들은 1970년대 이후도 브라질의 농축산업의 근대화에도 계속 기여하였고,

15 日本移民八十年史編纂委員會 編(1991, 285).

그 영향으로 현재도 일제 1세들의 직업은 농림어업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2. 브라질의 출생국가별 직업, 2010년

	브라질	일본	한국	기타	전체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	3352315	1412	688	32614	3387029
	3.9%	10.8%	13.6%	13.3%	3.9%
전문가	8430370	2106	928	59149	8492553
	9.8%	16.0%	18.3%	24.1%	9.8%
기술자 및 준전문가	5504896	616	296	18240	5524048
	6.4%	4.7%	5.8%	7.4%	6.4%
사무직	5997765	545	42	7710	6006062
	7.0%	4.2%	0.8%	3.1%	7.0%
서비스 및 판매	14355281	2558	1972	40573	14400384
	16.7%	19.5%	38.9%	16.5%	16.7%
농림어업 숙련	7357756	2779	43	6306	7366884
	8.5%	21.2%	0.8%	2.6%	8.5%
기능원 및 관련기능	9803394	615	49	16955	9821013
	11.4%	4.7%	1.0%	6.9%	11.4%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6964560	288	216	21237	6986301
	8.1%	2.2%	4.3%	8.6%	8.1%
단순노무	17408583	714	76	16605	17425978
	20.2%	5.4%	1.5%	6.8%	20.2%
군인	486809	0	0	143	486952
	0.6%	0.0%	0.0%	0.1%	0.6%
기타 미분류	6470806	1496	764	26091	6499157
	7.5%	11.4%	15.1%	10.6%	7.5%
전체	86132535	13129	5074	245623	86396361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Minnesota Population Center(2015), IPUMS-International (Brazil Census 2010)

## 시민권, 주택소유 및 총소득

본 섹션에서는 시민권의 취득여부, 그리고 주택소유와 관련하여 총소득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3은 출생국가 집단별로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시민권자의 비율과 주택소유 유무, 그리고 총소득에 관한

사항들을 눈여겨 볼만하다.

표 3. 브라질의 출생국가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2010년

출생국가	나이	여성	이민 햇수	시민 권자	주택 소유	자영 업자	총소득	
브라질	평균	31.52	0.51		1.00	0.75	0.43	892.31
	표준 편차	20.35	0.50		0.00	0.43	0.50	3600.47
일본	<b>평균</b>	<b>60.81</b>	<b>0.50</b>	<b>47.69</b>	<b>0.34</b>	<b>0.84</b>	<b>0.26</b>	<b>1809.84</b>
	표준 편차	26.37	0.50	25.26	0.47	0.37	0.44	4780.58
한국	<b>평균</b>	<b>46.03</b>	<b>0.52</b>	<b>19.27</b>	<b>0.14</b>	<b>0.44</b>	<b>0.53</b>	<b>4270.49</b>
	표준 편차	18.15	0.50	15.30	0.35	0.50	0.50	17933.38
기타	평균	50.60	0.46	31.37	0.27	0.68	0.46	2779.17
	표준 편차	23.55	0.50	23.67	0.44	0.47	0.50	10815.25
전체	평균	31.58	0.51	32.50	1.00	0.75	0.43	898.63
	표준 편차	20.40	0.50	24.16	0.05	0.43	0.50	3649.58

자료: Minnesota Population Center(2015), IPUMS-International (Brazil Census 2010)

한인과 일계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자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항은 나이 (60.81세), 이민햇수(47.67년), 주택보유(84%) 부분에서 일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한편 한인은 총소득이 전체평균보다 4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한인 1세가 유복함을 알 수 있다. 브라질 한인들의 맥락에서는 일계이민자들에 비하여 짧은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시민권 소유율 등이 낮을 수밖에 없으며, 한편으로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높은 총소득의 경우 의류관련 종사자들의 경제적인 성공을 유추할 수 있으며, 브라질 한인들의 삶의 강조점과 목표들이 경제적인 성공에 집중되고 있는 현장조사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는 일계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100년 이상의 이민 역사를 가지는 일계는 당연히 다른 민족에 비해 1세들의 평균나이, 이민햇수는 높다. 또한 이민역사의 길이는 시민권 소유율과 주택

보유율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나이가 많은 일계 1세에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브라질에 정착하는 것을 결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특징도 일계의 이동을 만류하는 요인이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오래된 역사 속에서 정착을 염두로 반세기이상 살아온 일계 1세들에게 정착지에 주택을 마련하고 현지사회에서 편의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인다.

## 결론 및 함의

브라질 한인과 일계 브라질인은 모두 아시아계 이민으로서 남미지역으로 이주하였다는 점과 초창기에는 농업이민의 성격이 강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현지생활의 적응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 매우 상이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은 브라질 한인과 일계 브라질인에 대한 세부적인 비교를 수행할 때 생활사적인 다양한 차이점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먼저 한인의 경우 브라질 이민역사가 2013년을 기준으로 50년을 맞이하였으며, 반세기 역사 속에서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대들이 발전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한국에 비하여 훨씬 더 오래된 브라질 이민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브라질 사회 내 깊숙이 자리 잡아 세대들이 발전하고 있다. 양국의 경우 중남미 브라질이라는 동일한 지역에서 이주와 적응을 경험한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이들의 이주와 적응 과정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탈국가주의 공동체와 이산과 집합의 디아스포라 생활사들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되며, 중남미 연구의 양적인 수준이 빈약한 가운데 국가별 비교를 시도하는 학술적 의의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계 이민자 집단이 거주국인 브라질에 적응하면서 형성하는 정체성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상이하게 나타나는가를 밝히는 것은 피상적인 이주민에 관한 기존의 문헌연구에 더하여 좀 더 심층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전술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선행연구가 미미한 중남미 한인의 디아스포라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브라질 센서스 자료를 분석하여 기존의 구술사 연구와 역사적 자료를 통해 알려진 브라질 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신뢰할만한 대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계량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 미네소타대학 인구학 센터에서 제공하는 IPUMS-International 자료 중 브라질의 2010년 센서스의 대규모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브라질 내 한인과 일계들의 생활사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브라질 내 한인과 일계들의 이민역사와 현황, 거주지 및 종교, 교육수준 및 직업, 시민권·주택소유 및 총소득의 축들을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브라질 한인과 일계들의 생활사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한 틀로써 작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양국의 생활사 이해를 위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양국의 이민현황과 흐름은 해당 국가의 이민 역사의 특징과 결부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이민 상황이 각국의 이민 역사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이는 이주자들의 이후의 삶의 양식과 이민 역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는 점에서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예를 들어 최근 40년 동안 일계 1세대는 그 수가 157,945명에서 48,141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한인 1세대는 비록 절대적인 수에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변화로 보일수도 있겠으나 인구가 2,280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9,578명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1970년대 일본의 국제 정세 속에서 새롭게 브라질로 유입되는 인구가 적었으며, 브라질 내 일본인들의 고령화 사항들을 예상케 함과 동시에 그들의 브라질 사회 내 변화의 폭을 의미한다. 반면 한인들은 그들의 이민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브라질 내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음과 그들의 생활사가 시작되는 물꼬가 열려지는 맥락임을 시사하고 있어 이주의 초기 시점 상황들과 관련된 흥미로운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양국의 이민 현황과 흐름은 각국의 이민 역사와 정책적인 사항들과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파악이 각국의 이민 생활사를 이해하는 전제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양국의 직업 영역에 특징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브라질 한인과 일계이민자들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표적인 항목인 직업 사항에 있어 독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인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약 14%에 달하고 있어 비교된 집단들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브라질 한인들은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 전문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취업자들 중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브라질 한인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상대적으로 한인들의 경우 서비스 및 판매 영역의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한편 일계이민자들의 경우 농림어업 숙련 영역에 상대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이는 일계의 초기 이민자와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일계가 장악하고 있는 농림어업 직종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비율이 매우 낮음을 고려할 때 특이한 모습이기도 하다. 특히 일계이민자들은 서비스 및 판매업 중심의 한인들보다 좀 더 다양한 직종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브라질 사회 내에서 일계이민자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다방면에 걸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직업적 영역의 차이는 양국의 브라질 사회 내 생활사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장으로서의 직업과 사회생활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핵심적인 틀이 되기도 할 것이다.

셋째, 양국의 사회적응 및 통합의 특징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술한 직업영역은 브라질 사회 내 적응 및 통합의 방향과 맥락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한인의 교육수준과 교육열(educational fever)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후의 사회 주류층으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담고 있는 부분이다. 한인들의 경우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브라질 사회의 주류층으로 공격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비스 및 의류업 중심으로 계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볼 때, 브라질 사회에의 적응 및 통합의 방향성이 다각화되지 못한 측면을 보여준다. 반면 일계이민자들의 경우 오랜 이민 역사를 바탕으로 사회 내 다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한 결과, 고위직으로의 진출은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브라질 사회 내 깊이 뿌리내려 다양한 삶의 영역들 속에서 안정감 있게 적응과 통합을 달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양국의 사회 적응 및 통합의 질적 수준에 있어 사회 전반적인 진입과 통합화의 측면에서 일계들의 맥락이 좀 더 긍정적인 사항임을 시사해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Associação Brasileira dos Coreanos, <http://haninbrasil.org/idx.php?id=hanin&code=112130&mode=view&num=569&lang=kr>
- Buechler, Simone(2003), "Koreans and Bolivians in the Brazilian Garment Industry: The Interconnection between the Global and Local," pape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2003 meeting of the Latin American Studies Association, March 27-29, Dallas, Texas.
- Choi, Keum-Ja(2000), "The Korean Community in Brazil Who Could Not Dance Samba: It's History and the Futur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Vol. 4, No. 2, pp. 43-68.
- \_\_\_\_\_(2014a),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Korean Community in Brazil, which Commemorated the 50th Anniversary of Immigration in 2013," *Latin American Affairs*, Vol. 33, No. 2, pp. 49-88.
- \_\_\_\_\_(2014b), "Brazil Dongposaeou Hyeonhwangwa K-POPSidae Dongpo Cheongsoneoneul Wihan Hangukeo Gyo-yukbanghyang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ommunity in Brazil and the Prospect of Mother Tongue Education for Korean Youths in the Age of K-POP)," *2014 Overseas Koreans Foundation Research Report #9*.
- Chung, Hae-Kyung, Nariyah Woo and Mi-Hye Kim(2012), "A Study of the Current State of Korean Restaurants in Sao Paulo in Brazi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etary Culture*, Vol. 27, No. 3, pp. 261-273.
- Fukui, Chizuru(2014), "One Hundred Years Later: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Nikkeijin Society in Latin America," *Stud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4, No. 2, pp. 67-76.
- Guimarães, Lytton(2006), "The Korean Community in Brazil: Challenges, Achievements and Prospects," paper presented at the The 3rd World Congress of Korean Studies, "Cultural Interaction with Korea: From Silk Road to Korean Wav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Oct. 27-30,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do, South Korea.
-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1994), *Emigration statistics*.
- Jeon, Gyeong-Su(1991), *Brazilui Hangukimin (Korean Immigrants in Brazi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Joo, Jong-Taick(2010), "Culture and Ethnicity in the Korean Transnational Community in Brazil,"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Vol. 12, No. 2, pp. 323-356.
- Kaizo, Iwakami Beltrão, Sonoe Sugahara and Ryohei Konta(2008), "Nikkei Burajirujin no Tokusyoku no Henka (Changes in Som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Origin Population in Brazil)," *Latin America Report*, Vol. 25 No. 2, p. 79-87.
- Kim, Ji-Eun(2012), "Emigration and Employment of Korean Japanese and

- Japanese-Brazilian,” A master’s thesis in Dong-eui University.
- Kim, Se-Gun(Year Unknown), “Junngnammiroi Hangukimin: Aju Oraedoen Mijiui Ttang (Korean Immigration to Latin America: To the Unknown Ancient Land),” [http://www.aainst.co.kr/?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433&sid=e60c39b1ef6260e758615cffe9a1dada](http://www.aainst.co.kr/?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433&sid=e60c39b1ef6260e758615cffe9a1dada)
- Kim, Yeong-Cheol(2011), “Brazilui Minjokhyeongseonggwa Imin: Asia Imineul Jungsimeuro (Immigration and the Formation of Brazilian People: Focused on Asian Immigration),” The 16th monthly seminar, International Regional Research Center,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Lim, Sang-lae et al.(2006), “Junngnammi Hanin Siltae Josa: Jeonmunga Geurup Jungsimeuro (The Survey on Koreans in Latin America: Focused on Professional Occupations),” Overseas Koreans Foundation.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2010), *Syukyō Tokei Chosa (Statistical Surveys of Religion) 2010*.
- Minnesota Population Center(2015), Integrated Pubic Use Microdata Series, International: Version 6.4 [Machine-readable databas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 Moon, So-Ra and Young-Jin Jang(2014), “The Formation Mechanism of Ethnic Enclaves: A Case Study of Bom Retiro Korean Garment Industrial District in Brazil,”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 17, No. 4, pp. 876-891.
- Nakayama, Hiroko(2014), “Nihon no Kaigai Ijyu no Soushutsu Keitai ni Kansuru Ichikousatsu: Ijyu no Kokusaika to 『Syudan Ijyu』(A Study on Outflux of Japanese Migration: National Policy for Migration and Collective Migration),” Hosei University Faculty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e Bulletin of Cross-Culture*, Vol. 15, pp. 113-136.
- Park, Chae-Soon(2011), “Junngnammi Hanin Dongposahoewa Dongpo Yeonguui Hyeonhwanggwa Jeonmang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n Communities and Korean Studies in Latin America),”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4vjI&articleno=15770284](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4vjI&articleno=15770284)
- Sakaki, Koji(2008), “Between Emigration and Immigration: Japanese Emigrants to Brazil and Their Descendants in Japan,” in Yamashita et al.(eds.), *Transnational Migration in East Asia*, *Senri Ethnological Reports*, No. 77, pp. 53-66.
- Sales, Augusto dos Santos(2002), “Historical Roots of the ‘Whitening’ of Brazil,”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29, No. 1, pp. 61-82.
- Tanaka, Makoto(2006), “Burajiru ni okeru Nihon Shinsyutsu Kigyo no Hensen (Changes of Japanese Advance Companies in Brazil),” *Brazil Flash*, 2006. 07, <http://www.bizpoint.com.br/jp/reports/oth/mt0607.htm>
- The Publication Committee of the History among Japanese Brazilian for 80 years(1991), *Brajiru Nihon Imin 80nenshi (The History among Brazilian Japanese*

- for 80 years*), San Paulo.
- The Publication Committee of History among Korean Brazilian(2011), *Brazil Haninimin 50nyeonsa (50 years of Korean Immigration to Brazil) (1962-2011)*, Seoul: KyoEumSa.
- Tsuda, Takeyuki Gaku(2001), “When Identities become Modern: Japanese Emigration to Brazil and the Global Contextualization of Identity,”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24, No. 3, pp. 412-432.
- Yim, Young-Eon(2010), “The Study on Ethnic Community Formation of Nikkeijin Diaspora: A Case of Brazil and America,” *Journal of Diaspora Studies*, Vol. 4, No. 1, pp. 5-36.

Article Received: 2016. 04. 14.

Revised: 2016. 05. 07.

Accepted: 2016. 05. 07.